

가짜 벌꿀 판별 쉬워진다

농진청, 사탕무 사양 벌꿀 판별법 개발 국산 벌꿀 품질관리에 활용 기대

국내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천연 벌꿀과 사탕무 사양 벌꿀을 구별하는 판별법을 개발했다.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이 경기대 연구팀(윤병수 교수)과 함께 세계 최초로 벌꿀 내 사탕무 유전자와 특이성분을 분석해 천연 벌꿀과 사탕무 사양 벌꿀 판별법을 개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우리나라 벌꿀은 천연 벌꿀과 사양 벌꿀로 분류된다. 천연 벌꿀은 아카시나무(Robinia pseudoacacia)와 같은 C3 식물에서 채취한 꿀이며, 사양 벌꿀은 C4 식물인 사탕수수(Saccharum officinarum)로 만든 설탕을 먹여 생산한 꿀이다.

그동안 천연 벌꿀과 사양 벌꿀은 탄소동위원소비(13C/12C) 분석으로 판별했으나 이는 꿀벌에게 사탕수수 설탕을 먹여 생산한 사양 벌꿀

에만 적용할 수 있었다. 아카시나무처럼 C3 식물로 분류된 사탕무(Beta vulgaris)에서 유래한 설탕을 먹여 만든 사양 벌꿀은 구별할 수 없었다.

이번에 개발된 '사탕무 사양벌꿀 판별법'은 이중 중합효소 연쇄반응법(nested PCR)을 통해 사탕무 고유 유전자를 분석해 사탕무 설탕을 먹여 생산한 사양 벌꿀을 구별해내는 기술이다. 이 판별법을 적용하면 천연 벌꿀에 사탕무 사양 벌꿀이 1% 정도 섞여 있어도 1시간 이내에 분석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연구진은 천연 벌꿀과 사탕무 사양 벌꿀을 판별할 수 있는 특이성분 트랜스-2-데센다이산을 세계 최초로 분리, 동정했다. 천연 벌꿀에는 트랜스-2-데센다이산이 평균 100g당 14.3mg이 들어 있

나 사탕무 사양 벌꿀에는 8배 많은 127.0mg이 들어 있어 천연 벌꿀과 사탕무 사양 벌꿀을 판별하는 지표 성분으로 설정할 수 있다.

이번 연구를 통해 사양 벌꿀 판별에 정확성을 기할 수 있게 돼 국산 벌꿀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이는 것은 물론, 부처 협의를 통해 수입 벌꿀의 안전성 확보에도 기술적 일조를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양봉 산물 수출의 기술적 기반도 연구, 제도적으로 확립함으로써 양봉산업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연구 결과는 한국식품과학회지 49권 4호 등 학술지에 논문이 게재돼 학술적으로 인정받았으며, 특허등록이 완료돼 실용화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잠사양봉소재과 이만영 과장은 "이번 연구성과를 통해 국내에 유통되는 벌꿀의 품질관리를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신혼부부의 새집, 저렴한 가격으로

LH 전북본부, 완주삼봉 A2 블록 희망타운 입주자 추가 모집

LH 전북지역본부(본부장 권창호)가 완주삼봉 A2블록 신혼희망타운 입주자를 추가 모집한다.

완주삼봉 신혼희망타운은 전용면적 55, 59㎡, 54세대 규모의 신혼부부 등 전용 주거단지로 평균가격은 전용면적 및 층별 약 628만원에서 712만원으로 주변시세에 비해 저렴한 가격에 공급된다.

동 단지는 지상에 차가 없는 공원형으로 조성될 예정이며, 어린이집, 실내 놀이터 및 단지 내 '학교 가는 길' 등을 조성하여 신혼부부에게 집 걱정 없이 아이 키우기 좋은 주거환경으로 건설될 예정이다.

더불어 일조량과 통풍성을 고려한

전 세대 남향 위주의 주동배치,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IT 시스템 구축, 지하층 계절창고 설치 등을 통해 편리함을 더했다.

또한 신혼희망타운 전용 저공리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연 1.3% 금리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70%까지 대출이 지원돼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신혼희망타운이 조성되는 완주삼봉 웰링시티는 약 91만5,000㎡ 규모의 부지에 주거와 상업은 물론 초·중학교와 공립유치원, 공원 및 소방서, 보건소, 파출소, 도서관, 농협마트 등 각종 공공시설과 행정기관이 결합된 미니 신도시급 스마트시티로 조성되고 있

며, 현재 공정률은 98%이며, 내년 6월 완공될 예정이다.

반경 4km 이내에 예곡시티, 삼례C와 익산IC 및 익산정수장 고속도로가 인접해 있는 등 최적의 교통 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반경 10km 이내에 완주 일반산업단지, 완주테크노밸리 등 산업단지 9개와 대학교 3개가 위치하고, 전주지역까지 10분 내외로 접근이 가능한 직주 근접형 입지가 장점이다.

LH는 지구 내 다양한 근린공원 조성은 물론 단지 서측에 약 73천㎡ 면적의 대규모 명품 펜백나무 숲 등을 조성하여 완주삼봉 웰링시티를 패시픽 그린단지로 조성할 예정이다.

토지분양도 거의 마무리됐다. 이번달 공급한 도시지원시설은 계약을 앞두고 있으며, 기 공급한 상업용지 및 단독주택용지, 공동주택용지 등도 100% 매각 완료됐다. 오는 9월에는 지구 내 최초 민간분양도 예정돼 있어 지구활성화가 예상된다.

이번에 추가 공급하는 주택은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무주택조건(무주택세대구성원)만 충족할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거주지역, 입주자저축, 소득, 자산 등 7가지는 따지지 않는다. 9월 7일부터 8일까지 견본주택에서 현장접수를 받을 예정이며, 동호지정 순번추첨 방식으로 진행된다.

완주삼봉 신혼희망타운 A-2블록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온라인 홍보관 <http://www.lhsambong-a2.co.kr>과 <http://신혼희망타운.com>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은 전북 완주군 삼례읍 수계리 310-1에 위치해 있다.

기타 공급관련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http://apply.lh.or.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완주삼봉 A2블록 신혼희망타운 조감도

새만금 산업투자형 발전 사업자 공모 마감

새만금개발청(청장 양충모)은 지난 6월 25일부터 이달 25일까지 진행된 새만금 산업투자형 발전사업 사업자 공모를 마감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공모에는 1개사가 제안서를 접수했으며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9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산업투자형 발전사업은 첨단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창업 협력지구(클러스터)와 글로벌 정보통신(IT) 기업을 겨냥한 데이터센터 등 총 6천여 원 이상의 투자사업에 대해 수송태양광 발전 사업권 200MW(메가와트)를 투자해택(인센티브)로 부여하는 사업모델이다.

이 사업은 새만금의 광활한 용지와 수면을 활용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마중물로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유호상 기자

전북 청년 글로벌기업 온라인 취업 멘토링 성료

전북도와 전북청년허브센터는 취업, 직무 등에 대한 청년들의 고민해소를 위해 비대면 방식을 활용한 '글로벌기업 온라인 취업멘토링'을 26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글로벌 기업에 관심 있는 도내 청년 150여 명이 참석해 취업특강과 멘토링, 취업 관련 질의응답 등 총 3시간에 걸쳐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온라인 프로그램 중(ZOOM)을 통해 진행했으며 아마존, 구글, 디즈니, 나이키 등 총 9명의 현직 멘토단이 함께 했다.

취업특강은 멘토들의 취업성공 경험담을 바탕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애로사항과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진행했다.

디즈니 김지은 멘토는 자소서 작성 및 면접 노하우 등 취업준비 과정부터

취업성공 후 직무 관련 에피소드에 대한 자세한 경험담을 언급했다.

아마존 김익수 멘토는 "지방대 출신이지만 직무 관련 경험과 경력을 쌓으며 노력한 결과 현재 세계적인 기업 아마존에 당당하게 취업할 수 있었다"며 학벌, 스펙보다 직무경험과 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그룹 멘토링 경우 9개 그룹으로 나눠 참여자가 원하는 직무 및 멘토를 선택하는 집중 멘토링 시간을 가졌으며 멘토단의 직무,기업소개와 취업정보 등 경험담을 통해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취업정보를 제공했다.

글로벌 기업 취업 멘토링에 참여한 전주 지역 한 청년은 "글로벌 기업 진출 및 글로벌 인재로의 성장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위해 기회를 마련해 준 전북도와 전북청년허브센터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농협은행 전북본부 26일,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특별재난지역 수해복구 금융지원 대책 회의를 열었다.

특별재난지역 피해 복구 위한 금융지원

농협은행 전북본부, 대책 회의 열고 신규자금 지원 등 적극 추진

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장기요)가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도내 특별재난지역 금융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6일, 전북본부는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특별재난지역 수해복구 금융지원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남원시에 이어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순창군 등 5개군·5개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된 상황에서 호우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농업인·지역주민·중소기업에 대한 다양하고 신속한 금융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를 위해 농협은행은 지난 4일부터 실시한 집중호우 피해 기업과 지역주민에 대한 신규 자금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신규 자금의 경우, 행정기관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농업인, 주민,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피해액 범위 내에서 기업과 개인 각각 최대 5억원, 1억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최대 1.0%이내(농업인 최대 1.6%) 대출금리 감면과 최장 12개월 이자납입 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기존 대출 기한연장, 농업경영회생자금 등의 다양한 금융지원 및 전담 상담 창

구 운영을 통해 자금이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전북본부는 코로나 19 재확산에 따른 피해 업체 지원을 위해 NH농협은행 2차 금융지원대출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함과 동시에 금주 예보된 태풍 바비 피해 발생 시 피해주민에 대한 즉각적인 여신지원 대책을 수립·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기요 본부장은 "코로나 19로 침체된 경제 상황과 유례없는 집중 호우로 농업인, 지역주민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며 "농협은행은 지역밀착형 은행으로서 조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다양한 금융지원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7월 전북 수출 4억8127만 달러

두달 연속 수출감소세 완화

7월 전북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8.7% 감소한 4억8,127만 달러로 집계됐다. 주력 업종의 수출부진이 이어지고 있지만 회복세에 있는 업종도 나타나고 있고, 두달 연속 수출액이 증가하며 수출감소세도 완화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이강일)와 전주세관(세관장 진운용)이 발표한 7월 전북 무역동향에 따르면, 7월 수출은 4억8,127만 달러, 수입은 3억8,422만 달러로 집계됐다.

수출 주력업종의 부진은 7월에도 이어졌다. 수출 상위 20대 품목의 수출 실적을 분석한 결과 전년 대비 34.1% 감소한 자동차(\$3,757만), 2위를 차지할 정도로 합성수지(\$3,498만, -20.4%), 정밀화학원료(\$2,873만, -60.3%), 건설광산기계(\$2,155만, -34.5%), 인조섬유(\$1,764만, -29.1%), 자동차부품(\$1,332만, -55.5%) 등 주력업종의 수출은 회복되지 않고 있다.

반면 농약(\$5,743만, 103.1%), 농산가공품(\$1,382만, 58.8%), 전기부품(\$555만, 40.5%), 패션잡화(\$500만, 45.1%) 등의 선전이 눈에 띄고 있다.

국가별로는 중국(\$1억95만, -25.4%),

미국(\$7,305만, -15.4%), 베트남(\$3,443만, -7.2%), 일본(\$2,963만, -19.4%) 등 4대 수출상대국으로의 수출이 모두 감소했다. 반면 브라질(\$2,918만, 360.4%), 독일(\$1,905만, 94.5%), 태국(\$1,697만, 14.0%), 폴란드(\$1,486만, 55.1%), 투르크메니스탄(\$0~\$1,404만) 등 신흥시장으로의 수출은 상당한 폭의 증가세를 보이며 이 국가들은 5~9위 수출상대국이 됐다.

한편 수출 주력업종의 부진은 기초 지자체별 수출규모에서도 변화를 가져왔다. 익산시(\$1억 4,342만, 33.6%)가 전북의 제1수출 지역으로 부상하면서 군산시(\$1억 2,106만, -43.3%)를 앞질렀는데, 이는 4년 17개월 만의 일로서 지자체별 수출통계가 집계된 2000년 이후 2006년 6월에 이어 두 번째이다.

이강일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장은 "중국을 제외하고 코로나19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국가가 없는 만큼 코로나 이전으로의 수출회복은 당분간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전북 중소기업의 수출회복을 위해 비대면 수출마케팅 지원사업에 매진하고, 코로나19로 인해 나타나고 있는 전북 수출구조 정밀분석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조달청, 조달제도 기본서 발간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26일 공공기관과 조달업체가 공공조달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조달제도 기본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간되는 조달제도 기본서에는 물품구매·시설·용역계약 등 공공계약에 이은부터 공로서·인가계약·적격심사·나라장터 등 다양한 실무내용까지 공공조달계약담당자들에게 필요한 사항을 수록했다.

기본서는 계약업무의 길라잡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발간됐으며 책자는 조달교육원 누리집(<https://hrd.prs.go.kr/8443/index.do>)을 통해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다.

나석영 조달교육원장은 "조달제도 기본서는 계약 업무로 힘든 공공기관과 조달업체에게 계약업무 기본서이면서 길라잡이 역할을 하는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조류인플루엔자 실시간 유전자 진단키트 개발

농림축산검역본부, 내달부터 보급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성능이 대폭 개선된 조류인플루엔자 실시간 유전자 진단키트(rRT-PCR)를 개발해 올해 9월부터 정밀진단과 상시예찰에 본격 사용할 예정이라고 지난 25일 밝혔다.

새로운 진단키트는 검출 민감도를 10배 이상 향상시켰으로써, 최근 유럽 및 아시아 등에서 유행하는 바이러스(H5형 및 H7형)에 대해 보다 정확한 진단이 가능해졌다.

이번에 개발한 진단키트는 유전자 변이가 누적돼 새롭게 출현하는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더 효과적으로 검출할 수 있으며, 내부재조물질(IPC)을 추가해 실험 도중 생길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함으로써 검사결과의 신뢰성도 높였다.

검역본부는 2017년부터 민간 제조업

체와 공동연구를 통해 새로운 진단키트를 개발해 왔으며, 동물용 의약품 제조 품목 허가 및 국내 특허등록을 완료했고, 지난 7월에는 신규 진단키트의 현장 보급을 위한 시범 적용을 실시했으며, 기관 대상 사용자 교육(8월)을 거쳐 9월부터 전국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에 개발된 신규 진단키트가 전국의 진단기관(39개소)에 보급되며 2020~2021년 동절기 조류인플루엔자 정밀진단과 상시예찰의 정확도가 높아져, 신속한 진단에 기반한 질병 확산 억제와 근절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명현 검역본부 조류인플루엔자연구진단과장은 "앞으로도 국내의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변이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으로 정밀진단법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가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LX, 호우피해지역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직무대행 최규성)가 전국의 호우피해지역에 한해 지적측량수수료를 50%로 낮춘다.

LX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전국의 호우피해지역에 대한 조속한 피해복구와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소유의 피해토지에 대한 지적측량 신청 시 2년간 수수료를 50% 감면한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주거용 주택이 모두 소실돼 신속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100% 감면해 줌으로써 피해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피해가구는 LX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통한 재난관리시스템의 피해정보 공유로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피해가구는 시·군과 읍·면·동에서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만 제출해도 감면신청이 가능하다. /김윤상 기자